

어린이주일
설 교

보혜사 같은 교회를 그리며

<요한복음14:15~17>



얼마 전, 평소 교회에서 만나는 청년 몇 명과 교제할 기회가 있어 “혹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 청년은 장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비전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직장 내 인간관계와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어긋남’을 느끼며 앞으로의 커리어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평가에 대한 압박감, 혼들리는 자존감 등, 청년기에 겪는 불안은 실로 다양하며 그 고민의 뿌리는 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미숙함으로 인해 ‘자기변호’와 ‘자기보신’에 힘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하는 시선에 노출되고 비교당하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곳이 내가 빛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인가?’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을 더욱 빛내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에, 어른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고민하며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나아가 일반적인 정신론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체가 ‘더 강해진 자기 자신’이기에, ‘더 강해져야만 해’ 라며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여 ‘홀로 강해지는 것’을 내세우는 현대의 정의와는 선을 그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해당 성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수난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15절이 전제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물으시며, 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16절이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 즉 원어인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돋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 이셨음을 암시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곁에 항상 함께하셨듯이, “나와 똑같이 너희 곁에 서 줄 또 한 분의 돋는 이

한 선 영 목사 (오사카교회 부목사)

를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오직 나 한 사람의 힘만으로 강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외치는 인간적인 정의를 향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체험하고 믿었던 바로 그분이 ‘보혜사’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본질적으로 변화된 존재로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의 영’이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벼름받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홀로 분투해야만 하는 얹매인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를 그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런 네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의 변호인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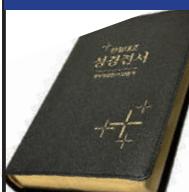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과 안식처를 찾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듯이, 교회 또한 그들의 변호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곁에 서서 돋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는 이에게 ‘정답’을 가르치고 강해지라고 격려하기에 앞서, 먼저 함께 있어주는 모습을 모색하고, 그것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을 안심하고 나눌 수 있는 곳,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지지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또한 ‘곁에 서서 돋는 자’로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관서지방회 京都교회 목사 위임식 거행
이성준목사가 부임, 권사취임식도 겸해



2025년 5월 18일 주일 오후 京都교회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이성준목사의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는 송남현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장 양영우 목사가 〈주께서 쓰시는 그릇〉(딤후2: 20 ~ 23)라는 설교를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서지방회장 김종권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기도후 선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주지자 권사 취임식은 京都교회 새로운 당회장 이성준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되었다.

권면에는 관서지방회에서 박성균목사, 김무사목사, 축사는 京都교회와 오랜 세월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부산 평광교회 이동희목사, 이성준목사가 부목사로 섬겨왔던 나고야교회 김명균목사가 하였다.

이번에 관서지방회로부터 京都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이성준목사는 1983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국립 한경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에 와서 동경기독교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2022년 5월 중부지방회 정기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신학생 때에는 요코하마교회를 섬겼고 나고야교회에서 전도사 및 부목사로 섬겼다.

가족으로는 김주영부인과 1남1녀가 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위원회

2025년 6월 9일(월) 일본기독교단 회의실에서 <제56회 재일대한기독교단과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에서 8명, 일본기독교단(이하 UCCJ)에서 8명이 참석하여 양 교회 소개와 과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접심식사 후 주제강연은 〈회개와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KCCJ의 김신야목사가 “전후 80년을 맞이하여 종전, 폐전, 광복이라는 단어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일조약 60년을 맞아 과거 한국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이 아닌 ‘경제원조’를 받아들인 것 등 일본과 한국, 재일동포를 둘러싸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증오 발언과 증오 범죄, 적대감, 그 속에서 깊은 궁휼하심으로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갖기를 바란다. ‘日韓’이라는 국민국가의 경제성을 짚어지고, 짚어지면서 회개를 잊어버린 책임을 짚어지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강연에 대한 응답으로 UCCJ의 久世そらち목사가 “근대 일본 국가는 이웃 민족·지역을 지배·통합·동화했다. 또한 대일본제국으로서 각국, 각 민족을 지배, 통합해 왔다. 그것은 일본이 세계 속의 소수자에서 다수자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근대 일본의 기독교 교회도 일본 내 다수파를 목표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YMCA 등 학생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 이누 민족에 대한 선교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기독교회는 스스로가 소수자임을 계속 바라보고 소수자로 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25년 ‘평화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내용과 추가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관서지방회 墽교회 목사 위임식 거행
김대현목사가 부임, 南港전도소 합병식도



2025년 5월 22일 주일 오후, 사카이교회에서는 김대현 담임목사 위임식과 사카이교회와 난코전도소 합병식이 거행되었다.

임시당회장 김종현목사의 사회로 개최된 예배에는 조영철목사가 ‘목사 위임의 의미’(딤후1: 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교회 합병식은 관서지방회 서기 배정애목사의 합병에 이르게 된 경과보고 후 관서지방회장 김종권목사가 “두 교회는 관서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목사 위임식은 관서지방회장 김종권목사의 사식으로 소개, 서약, 기도,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권면은 송남현목사, 김광성장로, 축사는 한국에서 이경원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안현교회), 重岡奈津子목사(일본기독교단 泉北梅교회), 吉井秀夫장로가 했다.

이번에 사카이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김대현목사는 198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강남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원, 関西学院대학 등을 졸업하고 2010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선교사로 파송되어 2011년부터 南港전도소에서 목회했다.

캐나다장로교회 150회 정기총회 참관기

고 대 한 목사 (캐나다 유학중)

2025년 6월 1~5일까지 캐나다장로교회(PCC) 150회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제 신앙 여정에서 정말 뜻깊은 경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몇 일간의 총회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캐나다 전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학업에 매진하며 때때로 느끼던 외로움이 이번 총회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다양한 안건을 두고 때로는 열띤 토론이 오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려는 성숙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와 포용적 교회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은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었습니다.

총회 기간 내내 이어진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는 심령을 채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선물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교제하며 얻은 따뜻한 격려는 앞으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저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희망찬 미래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총회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속한 KCCJ에서 더욱 겸손하게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깊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CCJ와 PCC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일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 한일 관계자 60여명이 참가해서 개최

2025년 한일 이단·사이비대책 세미나가 6월 16~17일 제일대한기독교회 후쿠오카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이단대책세미나에는 일본기독교단, 제일대한기독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기독교단컬트문제연락회 등 일본 관계자와 예장통합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교류했다.

세미나에서는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받은 구 통일교협회에 대한 법률적 절차와 전망에 대해 가와이 야스오변호사의 설명이 있었다. 또 소위 '종교 2세'라고 불리는 이단에 속한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의 피해와 구제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쓰다 사에씨는 이 단 종교 아래 성장한 종교 2세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랄 수 밖에 없었음을 인식하고 인간 존엄성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며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대종교 이사장이자 부산장신대학교 교수인 탁지일 목사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구원파, JMS 등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특히 이들 사이비단체들이 정치와 연결되어 어떻게 세력을 얻고 확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교주들이 사망하거나 구속된 이후 벌어지는 세력다툼에 대한 대안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독교단 소속 토요다 미치노부 목사는 [종교법 인의 해산명령과 신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단컬트 단체들의 해악성과 그곳에 속한 신자들의 인권은 별개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폐해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주목할 점은 이단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한국측은 교리적인 접근을 하고 일본측은 인권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교리와 인권,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조영철)

서부여성회 부활절 합동찬양예배 개최 9교회가 각각 퍼포먼스 피로

4월 20일(주일), 부활절 페스티벌 제23회 부활절 합동찬양예배가 서부지방 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고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예배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며,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9개 교회에서 총 102명이 함께하였다.

제1부 개회예배에서는 최형철목사(오카야마교회)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과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교회의 발표 시간이 이어졌으며, 찬양과 어린이들의 성경 암송,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석자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였다.

신도부장 윤종현목사(아카시교회)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된 후, 양율자 회장의 인사가 있었고, 이날 드려진 헌금이 전국여성회 '모리모리 푸드펜트리'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석자들은 빵과 주스가 담긴 기념품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안고 귀가하였다.



(보고: 최미혜자)

이주민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주민 혐오에 대항하는 교회의 활동 제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 교회와 사회위원회와 외국인주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는 6월 9~10일 서울제일교회에서 제21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주민 혐오에 대항하는 교회의 생명·평화 활동—동아시아의 평화와 이주민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24명, 일본과 在日 교회에서 18명이 참가했다.

한일 양국의 선교현장에서 각각 4개의 발제가 있었는데, 주제강연을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혐오와 차별 속에서 이주민 인권의 현황과 과제>, 이청일목사(외기협 공동대표)의 <韓·日·在日教会>의 연대 역사와 미래의 과제>의 특별강연은 지금까지의 역사를 바탕으로 현재의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 (1) 우리는 신민주의와 폐권주의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다. 특히 동아시아 평화의 큰 걸림돌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이며, 우리는 남북한의 완전한 해방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명확한 사죄와 전후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 (2) 우리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난민정책, 혐오발언·혐오범죄를 방지하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에 인종차별 철폐법 제정과 난민인정제도 등 외국인 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관
동
여
성
회

현신예배 열어

박영원장로(시나가와교회)가 간증

2025년 6월 8일 (주일), 관동지방여성연합회의 현신예배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에서 드렸다.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설교 궁활의 은혜를 체험한 여인, 하갈(창세기 21: 8~21)가 있은 후에, 박영원장로(시나가와교회)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사회생활과 믿음생활을



하신 박장로님이 부러웠다.

현신예배를 위해서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여성회 여러분들의 특별찬양에 감사드린다.

(보고: 이혜숙)

<住所変更>

朱文洪牧師 住所変更

〒194-0201 東京都町田市上小山田町393-17

TEL : 090-2516-5169

KCCJ 전국 교회 모든 교우들께 보내는 서신

총간사 정 수 환

2028년에 KCCJ는 창립 120주년의 분기점을 맞이한다. 기나긴 이 길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KCCJ 총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 오늘까지의 KCCJ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싶다.

1906년에 동경 조선기독교 청년회(현재 재일본 한국 YMCA)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서연구회가 개최되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1908년 정의로 장로, 김정식 YMCA 총무, 그리고 10여명의 학생들이 예배 후에 모여 YMCA와는 별도로 교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본국 예수교장로회에 목사파견을 요청하여 동경교회가 설립됨으로 KCCJ 총회의 선교가 시작되었다. 1911년에는 동경에서 감리교회 신도가 늘어남으로 인해 따로 교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유학생 임원회에서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결의했다. 이로써 본국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동경의 동포교회에서 초교파(에큐메니컬) 선교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897년부터 조선선교를 시작했던 캐나다장로교회(PCC)는 1927년 재일동포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L.L.Young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L.L.Young 선교사 파견으로부터 시작된 선교가 2027년에는 PCC 재일동포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본국에서 일본으로 온 동포들을 통해 교파의 벽을 극복하고, 캐나다 교회가 더하여져 한 마음으로 하는 선교의 풍요로움을 나타내시고 KCCJ 총회의 초석을 쌓아놓으셨다. 이것이 현재의 KCCJ 총회 선교의 원점이다.

동경교회 창립의 계기가 된 동경 조선기독교 청년회 회관에서는, 1919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2.8 독립 선언식」이 거행되어 본국의 「3·1 독립 운동」으로 이어졌다. 1923년에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동포들과 중국인들이 유언비어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재해당시의 KCCJ 활동을 남긴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재해 발생일인 9월 1일에 가까운 9월의 첫째 주일을 「인권 주일」(2025년은 9월 7일)로 정하여, 관동 대지진에 있었던 동포들의 재난을 기억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동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1939년 종교단체법이 공포되어 각 종교단체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KCCJ는 일본 기독교회에 가입한다. 경찰 당국에 의해 경도교회 예배당이 사용 불가(1935년) 되고, 경도교회 · 경도남부교회의 교역자와 장로, 신도들이 치안 유지법(1925년 공포) 위반으로 검거(1941.7.26)되어 해산을 강요당하였으며 태평양전쟁 개전으로 인한 '비상조치'로 아이치, 효고, 오사카의 목사와 신도들이 체포(1941.12.9)되었고 모국어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KCCJ의 선교는 본국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이국에 있는 동포들의 신앙과 생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교회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1941년에는 일본에 있는 개신교 교회들은 여러 교파가 일본 기독교단으로 합병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일본기독교단에서 탈퇴하여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를 창립해 올해는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 후 귀국하는 교우들도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다. 일본사회에 있는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고 동포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한 ·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동포와 일본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재일 한국인 뿐만 아니라 브라질, 베트남, 네팔, 대만 사람들도 KCCJ의 일부 교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려고 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온 KCCJ이지만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30여 명의 교역자가 은퇴를 맞이하고 40명이 넘는 장로가 은퇴하게 된다. 교역자가 부족하여 선교사들의 도움만으로 예배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인한 재일 한국인의 감소와 재정적인 지역 격차라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본국 교단의 신학생을 일본 신학교, 신학부에 받아들이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본에 오는 신학생의 비용과 언어 습득의 과제, 사회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KCCJ 선교는 에큐메니컬하고 다양한 선교활동에 사명을 가진 현신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 이상으로, 보다 깊고, 폭넓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KCCJ의 선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이 과도기를 넘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와 재일 한국인 감소의 과제를 안고 재정적으로 교역자 청빙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는, 만 70세를 넘어도 만 75세까지 시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KCCJ 협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KCCJ가 안고 있는 과제와 선교의 일을 전 교우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해와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까지 KCCJ와 연결된 모든 교회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 온 교역자들과 교우들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宣教委員会オンラインセミナー、 KCCJ宣教120周年を迎えて

- その課題と未来像 -



* 発題：総幹事 鄭守煥牧師

* 応答：金聖泰牧師、李明信牧師

○日時：2025年7月28日（月）19：30～21：30

○ZOOMによるオンライン（言語：日本語）

○教役者と信徒

●お問合せ：委員長 趙永哲牧師 (080-5318-9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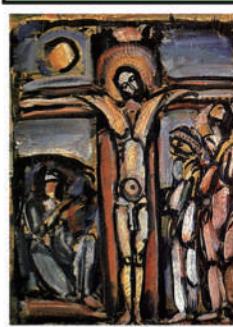
*ZOOMサイトの案内と発題原稿(日本語と韓国語)は7月26日(土)頃、各教会の教役者にE-Mailで送りますので長老や信徒の方に転送してください。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委員会

●KCCJ 2025 年 教役者修養会 (zoomによる) ●

～教会における女性の役割とは？～

2025.8.4 (月) 午後 1 時～4 時 (参加費無料)



また、女たちも遠くから見守っていた。その中には、マグダラのマリア、小ヤコブとヨセの母マリア、そしてサロメがいた。この女たちが、イエスがガリラヤにおられたとき、その後に従い、仕えていた人々である。このほかにも、イエスと共にエルサレムへ上って来た女たちが大勢いた。（マルコ 15：40-41）

イエスとともに歩いた女性たちの姿を想い
教会の明日の姿を想い描こう

今回の教役者の修養会においては、教会における女性の役割について、世界の状況から学び、日本や韓国の教会의今後の歩みを展望する機会にしたいと思います。教会にかかわるすべての人が、自分のこととして考え、自由に話し合える場にしたいと思います。ぜひご参加ください。

zoomID : 934 6129 8009
ミーティングID : 634 448 4810
パスコード : 832804

主催：在日大韓基督教会教育委員会
後援：全国教会女性連合会